

文-安 기사움... '폭풍전야' 새정치

중앙위 D-1...회의 개최 여부·의결방식 놓고 갈등

안측 "무기명 투표 아니면 퇴장"...문측 "무관한 사안"

공천혁신안 의결을 위한 중앙위원회 회의를 하루 앞둔 15일 새정치민주연합 주류와 비주류 간에는 일촉즉발의 긴장감이 흘렀다.

특히 문재인 대표가 비주류의 연거구에도 불구하고, 중앙위 회의를 강행하기로 함에 따라 양측은 팽팽한 기사움을 보였다.

이날 양측의 갈등은 중앙위 개최 여부와 의결 방식에서 드러났다. 비주류 측은 중앙위 회의 연기를 주장하고 있으며, 회의를 개최하더라도 혁신안 의결방식은 무기명 투표가 되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문 대표가 혁신안에 자신의 거취를 연동시키는 바람에 중앙위가 사실상 인사문제로 변질됐기 때문이라는 게 이들 주장의 근거다. 인사에 관한 사항은 비밀투표로 처리한다는 당무외 운영규정을 준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비주류 모임인 '민주당의 집권을 위한 모임'(민집모)은 이날 모임을 하고 무기명투표가 수용되지 않으면 집단퇴장키로 의견을 모았다. 이들은 중앙위 개최 전 김성곤 중앙위 의장을 만나 이 같은 입장을 전달할 예정이다.

박주선 의원은 이날 성명을 내고 "지금 야당은 진보의 이름으로 혁신을 파괴하고 민주의 가면으로 정의를 무너뜨리고 있다"며 "반대표가 요구하는 것은 다른 무엇이 아니라 '더 토론해보자'는 것"이라고 주류 측의 중앙위 강행을 비판했다.

이에 대해 주류는 현실적으로 중앙위 일정을 연기하기 힘들기 때문에 이견이 있다면 회의장에서 반대 토론에 나서 것이 적절하다는 입장이다. 또한, 공천혁신안은 인사문제와 무관한 만큼 무기명 투표 사안이 아니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문 대표 측은 "혁신위 안건은 문 대표 신임안이 아니라 공천혁신안을 담은 당헌 개정안"이라며 "실무국의 검토 역시 똑같은 결론이 나왔다"고 주장했다.

김상곤 혁신위원장은 이날 성명을 내고 "실천하지 않는 혁신은 혁신이 아니다"며 혁신안 처리를 호소했다.

이런 가운데 광주지역 새정치민주연합 당원들의 갈등도 우려된다.

새정치민주연합 혁신위원 중앙위 통과를 하루 앞두고 광주지역 당원 수백명이 '혁신위 지지선언'을 발표했다.

새정치민주연합을 사랑하는 광주시민

과 당원이라고 밝힌 269명은 15일 혁신과 단결을 저해하는 일체의 행위를 중지하라고 촉구했다.

지방의원 일부와 당원, 시민들인 이들은 이날 성명을 내고 혁신위 혁신안을 지지하고, 일부 국회의원들의 해당행위 중지를 촉구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군복 입은 문재인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현장 시찰로 인천 옹진군 연평도 연평부대를 방문한 15일,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가 망원경으로 북측 지역을 관측하고 있다. /*연합뉴스

與野, 노동개혁 입법전쟁

"당정청 회의로 총력전" vs "불공정 합의...대안입법 추진"

여야는 15일 노·사·정이 '노동시장 구조 개선을 위한 합의문'을 최종 의결한 데 대해 상반된 반응을 보여 국회 입법 과정이 순탄치 않을 전망이다.

새누리당은 이날 노사정 합의를 환영하면서 야당의 입법 협조를 주문했다. 또 오는 20일 당정청 회의를 여는 등 입법에 총력을 기울인다는 각오다. 반면, 새정치민주연합은 이를 대기업에 유리하고 노동자에게 불리한 '불공정 합의'로 규정하고 대안입법을 한다는 방침이다.

새누리당 신의진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노동시장 선진화는 국가의 미래가 걸린 사안인 만큼 정략적인 접근은 없어야 한다"면서 "하지만 벌써 야당이 법안 통과를 가로막을 것이라는 우려 섞인 목소리가 들려오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국회가 국가와 국민을 위해 중지를 모으고 단합된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야당의 전향적인 태도를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반면 새정치연합 김영록 수석 대변인

은 "합의안으로 노동계는 쉬운 해고, 임금 삭감, 비정규직 확대 등 많은 불이익을 감수하게 됐지만, 재계는 노력했다는 약속만 했다"며 "그런 점에서 노사정 합의안은 불공정한 합의의 전형으로 기술어진 한국사회의 단면을 똑똑히 보여준다"고 비판했다.

이에 따라 새정치연합은 일단 국회 입법화 과정에 집중하기로 전략을 수립하고 새누리당의 노동개혁 5대 입법에 대한 대안입법을 한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당내에서는 한국노총이 예상대로 개고 전격적으로 노사정 대타협에 동의한 데 대한 당혹감과 함께 정부 여당의 노동개혁 논리에 힘이 실리고 향후 여론전이 더욱 강화될 것이라는 우려도 없지 않은 상황이다. 노동개혁이 수 탓에 노동계가 분화할 경우 노동개혁 논의는 물론이고 내년 총선 대비에 까지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朴대통령 "노동자 희생 강요 않겠다"

청년 일자리 펀드 아이디어 제시...1호 기부 검토

박근혜 대통령은 15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노사정위의 대타협에 대해 "노동자 여러분의 고뇌에 찬결단이 결코 희생을 강요하고 쉬운 해고를 강제하는 일이 없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특히 대타협 정성에 따라 각계각층의 고충분담 차원에서 청년 일자리 펀드를 조성하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또 출산수백 차원에서

본인 월급의 일정액을 펀드에 제1호로 기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함께 박 대통령은 이산가족 상봉과 관련 "연간 한두 차례 이뤄지는 생사확인인 상봉행사만으로는 이산가족들의 아픔을 도저히 치유할 수 없다"며 "올해에는 남과 북이 반드시 이 이산가족 문제의 근본적 해결책을 찾아야 하겠다"고 말했다. /*박지경기자 jkpark@

文-安 '담판 회동'

중앙위 개최·재신임 투표 놓고 평행선

최근 며칠 사이 각을 세우며 갈등을 노출해온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와 안철수 전 대표가 15일 오후 늦게 만났다. 갑작스런 이날 회동은 안 전 대표의 회동 제안에 "언제든 만날 용의가 있다"고 화답하면서 이뤄졌다.

회동이 있기 전까지 두 전연직 대표는 팽풍계임을 하듯 중앙위 개최 및 문 대표의 재신임 투표 등을 두고 공개서한과 기자회견 등을 통해 정반대 의견을 내면서 평행선을 걸었다. 문 대표가 전날 밤 공개편지를 통해 안

전 대표의 중앙위 소집 연기 및 재신임투표 철회 요구를 거절하는 입장을 밝히자, 안 전 대표는 이날 오전 중앙위 소집 연기와 재신임투표 철회를 거듭 요청하면서 "문 대표와 만날 용의가 있다"며 회담을 제안했다.

서로를 향한 날선 비판도 계속됐다. 안 전 대표가 첫 서한에서 "당에 기득권을 유지하려는 타성이 뿌리박혀 있다"고 하자, 문 대표는 답장에서 "그 타성이 혁신의 발목을 잡았다"면서 "지금 당을 흔드는 혁신에 대한 진통은 얼마나 다른가"라며 중앙위 연기요청을 우회 비판했

다. 일각에서는 두 전연직 대표의 갈등에 대해 오는 2017년 대권경쟁을 염두에 둔 전초전 성격이 있다는 분석까지 내놨다.

또 일각에선 양측의 대치가 2012년 대선 후보단일화 당시의 모습과 닮았다는 지적도 나온다. 당시에도 양측은 아군의 운명을 건 대선을 앞두고, 단일화 물 등에 대해 제안과 역제안을 거듭하면서 '핑퐁대치'를 벌였다. 결국, 안 전 대표가 후보에서 사퇴했으나 '아름다운 단일화'는 이루지 못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박준영 전 전남지사 '신민당' 창당

내달 발기인 대회... "제1야당으로 자리매김 할 것"

새정치민주연합을 탈당한 박준영 전 전남지사가 15일 '신민당' 창당을 공식 선언, 신당의 물꼬를 텃다.

박 전 지사는 이날 여의도 서울시티 클럽에서 창당 기자회견을 열어 "당원이 주인의 정당, 일하는 정당, 보통사람들의 정당을 만들겠다"고 선언했다.

그는 이어 "다음 달 안에 발기인 대회를 갖고 연말까지 창당을 마칠 계획"이라며 "내년 총선을 통해 새정치연합을 대신하는 제1야당으로 자리 매김하겠

다"고 포부를 밝혔다. 박 전 지사는 천정배 무소속 의원에 대해서는 "신당 세력은 전부 합쳐야 한다"고 강조.후추 함께 할 수 있다는 의지를 나타냈다.

박준영 의원 등 새정치연합 내부의 비주류 현역 국회의원들에 신당 참여 여부와 관련, 박 전 지사는 "정기국회가 끝나면 다수 현역 국회의원들이 함께 할 것"이라고 밝혔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회원전용신용대출

최대 5,000만원 까지

* 신용상태 등 당사가 정하고 있는 조건에 적합하지 않을 경우 대출이 일부 제한될 수 있습니다.

자신만만자유예탁금 - 하루만 맡겨도 최대 1.7% 이율 적용

(금액 단계별 차등이율이 적용되는 입출금이 자유로운 예금)

자신맞공제 2,500억 조기달성 기원 행운 이벤트

대상

1. 자동차 3년 이상 신규 신청 고객 - 1장 (7년 이상 2장)
2. 전자금융 (인터넷, 텔레뱅킹) 신청 AND 체크카드 신규 발급고객 - 1장
3. 정기예탁금 신규 및 재예치 고객 - 1장 (1천만원 이상)
4. 자동차보험, 화재보험 가입 고객 - 1장
5. 정기적금 신규 가입 고객 - 1장 (1회 불입금 30만원 이상)
6. 신규 공제 가입 대상 고객 - (초회 공제 5만원 이하 - 1장, 10만원 이하 - 2장, 10만원 이상 - 3장)
7. 카드결제 계좌 변경 - 2장 및 급여이체 변경 고객 - 1장

행사기간
2015. 04. 06 (월) ~ 2015. 11. 30. (월)

추첨일
2015. 12. 01(화) 본 금과 본점에서 추첨 - 당첨자 개별통보 및 공고문 게시(경쟁입회 하 추첨 예정)

경품안내

* 1등 - 순금 골드바(1명)	* 4등 - 족욕기(10명)
* 2등 - 의류 스타일러(1명)	* 5등 - 백화점 상품권(20명)
* 3등 - 아이패드(3명)	* 행운상 - 온누리 상품권(40명)

주의사항

1. 미성년자는 추첨대상에 제외.
2. 경품 중복 당첨 시 상위 상품에 대하여만 지급.
3. 추첨일 당일 행운권 교부 대상 조건 유지자에 한 하여 지급되며, 미 유지시 경품 지급 대상에서 제외.

* 상기 이외는 실제 상품과 다를 수 있습니다.

본점
062)525-2770~2
(용봉동 현대자동차서비스 옆)

용주점
062)525-2774~5
(용봉동 주민센터 앞)

삼각점
062)525-2776~7
(삼각동 고려고등학교 앞)

빛고을새마을금고